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친구 생각에 공감하고, 내 감정을 관찰한다

※ 이 사례는 서지영 충남 음암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학기말입니다. 학기가 끝나면 또 다시 새 학기가 찾아올 텐데요.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지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음암중의 Wee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의 '새 학기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아이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인관계·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 '스탬프 투어' △ '욕설금지 데이'를 실시했습니다.



대인관계 기술 기르고 자존감도 쑥쑥

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면 가장 먼저 친구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관계형성에 서툰 아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방법을 배우고 솔직한 감정표현을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각각 포스트잇에 써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로 '똥똥하다'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표현

을 겪었습니다. 이 활동을 한 학생들은 “평소 친구에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 감정을 친구들에게 솔직히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해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SCT문장완성검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SCT문장완성검사는 미완성된 문장들을 읽고 자신이 해당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할 때다’ ‘나는 ○○○할 때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문장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완성해가며 자신의 감정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 미처 관찰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지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선다

‘욕설금지데이’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해 기획된 캠페인입니다. 새 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욕설금지데이’는 솔리언또래상담동아리와 힐링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학생들의 유행어를 접목시킨 ‘욕하는 그대들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욕하면 아디오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만들어 등굣길에 선보여 학기 초 ‘친구들에게 욕을 하지말자’는 메시지를 전파했지요.

‘스탬프투어’는 새 학기에도 상담실이 학생에게 열린 공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틈틈이 진행되는 MBTI·스트레스지수·인성검사 등의 심리검사와 심리퀴즈·우드공예·걱정인형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완수하며 스탬프를 하나씩 모아 나가는 활동이지요. 이 활동은 학교 선생님들의 활약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상담·심리검사’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거부감을 느끼던 친구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독려하자 적극 참여한 것이지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자신의 성격유형을 살펴보는 등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대구시 과학교사동아리 '나비효과'

교사들의 날갯짓, 변화를 이끈다



과정 중심 수업을 위한 워크북 개발에 대해 논의중인 '나비효과' 교사들. 임정미 교사 제공

대구시에는 과정중심의 과학교과 수업을 연구·공유하는 교사동아리 '나비효과'가 있다. 나비효과라는 교사들의 작은 몸짓이 전체로 울려 퍼져간다는 뜻. 해당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학생들의 시선에 맞는 과학교과 수업을 개발해 학생 스스로 깨우침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나비효과를 이끄는 임정미 대구 노변중학교 과학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이해·체험위주 수업'위한 워크북 제작

교사들은 암기 중심의 기존 교과서로는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중심 과학수업을 꾸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연수에서 만나 뜻을 모은 교사들이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연구해 그것을 보완한 워크북을 만들기로 한 것.

9명의 연구교사들은 수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어떻게 하면 교과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워크북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다. 이후 매달 한 차례 진행되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동안 대화방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실체화시키기 위한 '끝장 토론'을 이어가는 것. 과학교과의 특성상 물리·생물·지구과학·화학 4가지 영역 각각의 전공분야를 맡은 교사가 토론을 주도하고 다른 교사들은 학생의 눈으로 질문을 던지며 합의점을 찾는다.

예를 들어 '빛과 파동'수업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학생들이 '광원을 제외한 모든 물체는 반사를 통해 보여진다'는 개념을 능동적으로 이해할지 고민한 뒤 토의를 통해 '워크북에 여러 사진을 제시해 학생들이 빛의 반사 원리를 거꾸로 유추해나가도록 하는 수업을 구성하자'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현재 연구회는 개발한 워크북을 온라인을 통해 200여명의 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임 교사는 “활동을 통해 사고가 더욱 깊어지는 교사들의 모습은 물론이고 수업 중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찾아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상생활과 과학 교과를 연결하는 수업기법 시도!

‘나비효과’가 추구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교실 밖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과학교과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학생 스스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것. ‘나비효과가’ △PBL(프로젝트 수업) △디자인씽킹 수업 △지역사회 연계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기법을 연구·시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수업기법들을 낯설어하는 학생들도 많아 아직 극복해나가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임 교사는 “최근 ‘유리컵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있을까’라는 주제의 PBL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여러 융합적 활동을 하는 것에 다소 버거워 하기도 했다”면서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시도한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능력을 함양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업 구성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